

## 화장의 상징적 기능과 페이스 페인팅

이 연 희<sup>†</sup>

한국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 A Study on the Symbolic Function of Make-up and Face-painting

Yon-Hee Lee<sup>†</sup>

Dept. of Beauty Desig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접수일(2008년 6월 11일), 수정일(2008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2008년 9월 5일)

####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fine the different conventional meanings of face painting, we can come across easily in recent days, in different times and different cultures. The conclusion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ed. First, the face painting was mainly done for the symbolic function. Second, in un-cultivated groups, face painting was one way of body art expression and in some cases, the color and the pattern was the tool to give a symbolic message that was more powerful than a languag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terning was that they adopted wide range of patterns include geriatrics, abstract, animals, plants and especially the abstract patterns have the groups unique symbolic meanings such as specific pattern appears guard god which was the effort of having a wholeness with the pattern. Third, it is known that in un-cultivated cultures, face painting has a symbolic function whereas in modern society, there is an emphasis on a decorative function. Lastly, the various expressions of modern body decorations are seen as a result of social/cultural states of the settlement ethnic culture and the modern life style of the people who want to have direct and active opinions and individualize and differentiate themselves.

**Key words:** Make-up function, Face-painting, Symbolic function, Decorative function; 화장의 기능, 얼굴 그림, 상징적 기능, 장식적 기능

## I. 서 론

화장(化粧)은 신체위생 및 관리, 장식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지만, 오늘날 생활문화로 정착된 화장은 영어의 메이크업(make-up)에 해당된다. 화장의 범위는 일반 얼굴화장(beauty make-up)부터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분장(make-up), 특수분장(special make-up)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데, 이러한 구분은 대개 화장 주체자와 화장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여기서 화장 주체자란 일반인과 특정 분야 종사자들, 화장방법이란 일반 얼굴화장과 분장 및 특수분장에 사

용되는 기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얼굴화장인 뷰티메이크업과 페이스 페인팅이 일반인들의 피부보호나 사회적 역할 수행, 그리고 장식을 위한 자기표현행위임에 비하여, 분장과 특수분장은 무대 공연이나 각종 매체 제작에서 특정 캐릭터의 특성 표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일반인들의 직접적인 화장행동인 뷰티 메이크업과 페이스 페인팅은 화장의 기능적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뷰티 메이크업이 피부보호와 관리를 위한 신체보호적 기능과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인상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일상적인 화장행동임에 반하여, 페이스 페인팅은 일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특별한 상황에 따라 색이나 문양으로 얼굴을 장식하거나 상징적 의미 전달을 위한 장식적, 상징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yh8170@hanmail.net

적 기능을 강조하는 비일상적 화장행동이기 때문이다.

화장의 상징적 기능은 페이스 페인팅과 바디 페인팅의 주 기능이며, 특히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신체화장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의사소통 수단이였다. 비기독교 문화권의 신체장식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은 18, 9세기 이후 기독교 선교사들과 여행자들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장의 상징적 기능 고찰을 위하여 페이스 페인팅 뿐 아니라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한 비기독교 문화권의 바디 페인팅 또한 연구범위에 포함 시키는데 이는 이 지역 원주민들의 생활문화에서 신체화장이 의복의 역할까지 수행했기 때문이다. 인류역사에서 의복의 발달은 바디 페인팅의 영역을 축소시켰고, 특히 기독교에서 강조했던 정숙성은 신체노출을 금기시킴으로써 신체화장은 자연스럽게 얼굴 뷰티 메이크업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서구사회에서 의복이 신분이나 부의 과시였다면,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바디 페인팅과 페이스 페인팅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들 지역의 페이스 페인팅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오늘날 스포츠 경기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이스 페인팅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화장의 기능과 페이스 페인팅의 관련성, 비기독교 문화권의 페이스 페인팅에서 표현된 색과 문양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오늘날 스포츠 경기 및 각종 행사에서 표현되고 있는 페이스 페인팅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첫째 화장의 기능적 측면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고찰하며, 둘째 비기독교 문화권 페이스 페인팅의 색과 문양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셋째 현대와 비기독교 문화권의 페이스 페인팅의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신체장식 관련 각종 문헌, 신문기사의 그림 또는 사진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대상과 시기 및 지역은 고대 조각상과 18세기 이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및 인도를 포함한 비기독교 문화권의 바디 페인팅과 페이스 페인팅, 20세기 이후 현재까지 현대 서구사회와 한국의 페이스 페인팅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 축제문화에서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는 페이스 페인팅이 단지 일반인들의 참여의식이나 주체의식 고취 차원에서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표현의 측면에서 재조명 되어지고, 각 문화권의 페이스 페인팅에 내재된 의미를 현대 화장문화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의를 둔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화장: 신체위생과 관리, 장식을 위한 모든 행위이며, 좁은 의미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얼굴 화장
- ▶ 페이스 페인팅: 얼굴 고유의 특징과는 상관없이 얼굴에 문양이나 색을 그려 넣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얼굴그림, 즉 얼굴이 캔버스의 기능을 수행 함.
- ▶ 바디 페인팅: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그리는 그림, 본 연구에서 인용한 아메리카 인디언과 오세아니아인들의 바디 페인팅, 그리고 현대 바디 페인팅은 의복의 기능을 수행 함.

## II. 페이스 페인팅의 기능

화장의 기능은 복식의 기능과 같이 크게 도구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도구적 기능은 피부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신체보호적 기능과 사회적 인상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말하며, 이는 곧 일반 얼굴화장의 기본적 기능이다. 화장의 표현적 기능은 개인의 미적 표현강화를 위한 장식적 기능과 개인이나 집단의 신분과시 또는 정체성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상징적 기능으로 분류된다. 본 장에서는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장의 표현적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화장의 표현적 기능

페이스 페인팅의 근본 목적은 화장의 표현적 기능 수행이며, 표현방법에 따라 장식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 중 어느 한 기능을 더 강조한다. 즉 얼굴 전체가 화폭이 되어 본래 얼굴이미지보다 페이스 페인팅이 더 부각되면 상징적 기능이 강화되지만, 얼굴의 한 부분에 특정 그림이나 문자를 그리는 부분 페이스 페인팅은 단지 얼굴장식의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1) 장식적 기능

화장의 장식적 기능은 개인의 자기 만족과 신분과시를 위한 미적 표현수단으로 간주된다. 전통부족 집단의 화장행동에서 나타난 장식적 기능의 예는 아프리카 수단(Sudan)의 남성 화장을 통하여 알 수 있다.

Polhemus and Randall(1996)은 누바족 젊은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화려하고 특징적인 화장을 하였으며, 특히 고귀한 신분의 남자일수록 더욱 더 장식적이고 정교하며, 화려한 화장을 했던 예를 통하여 신분과시를 위한 화장의 장식적 기능을 설명하였다. Sanders(1989)도 누바인의 신체예술은 주로 건강과 건강한 신체찬미를 위한 미학적인 관례였으며, 특히 젊은 누바 남자에게 신체장식은 신체적 특성의 독창성과 균형미 향상의 가치적 요소였고, 사용했던 색과 형태는 전통적이고 종교적 의미보다는 오히려 개인적 창의력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비기독교 문화권 집단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바디 페인팅을 포함하는 페이스 페인팅이 색과 문양을 통한 상징적 의미전달 체계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집단에 따라서는 이성에 대한 매력성 강화나 신분과시를 위한 장식적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화권의 얼굴화장에서 장식적 기능 수행의 예가 있다. Reynold(2003)는 엘리자베스 1세 얼굴에 두껍게 발랐던 독성의 백납 분과 과도한 눈화장, 그리고 17·8세기 유럽 귀족 남녀의 입술화장, 18세기 여자들의 눈썹 밀어내기 등과 같은 인위적 화장은 당시 서구 상류 사회의 자기만족과 신분과시를 위한 것이었으며, 20세기 하위문화 집단 남녀의 극적인 입술화장과 두꺼운 피부화장은 화려함과 매력성 강화, 자기만족이 목적이었다고 하였다. Polhemus(1988)도 매춘부처럼 지나치게 화려한 화장은 성적 흥미나 도취를 나타내는 화장의 장식적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일반 얼굴화장과는 기능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오늘날 TPO에 의한 특징적 화장 또한 장식적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약혼식, 결혼식, 이브닝 파티 등과 같은 특정 행사에서 주인공의 얼굴화장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얼굴화장과 차별화 된다. 즉 특정 행사에서 주인공의 얼굴화장은 두꺼운 화운데이션과 파우더에 의한 피부표현, 음영에 의한 입체감 강조, 속눈썹 사용, 눈과 입술을 강조시킨 부분화장 등으로 일반 뷰티 메이크업과 비교할 때 더 장식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장의 장식적 기능은 개인의 미적 표현수단이며, 페이스 페인팅과 바디 페인팅의 표현특성과 방법에 따라 상징적 기능과 차별화 되며, 일반 얼굴화장에서와도 표현방법과 화장색 정도에 따라 뷰티 메이크업의 사회적 기능과 구분된다.

## 2) 상징적 기능

페인(1965/1988)은 피부장식은 복식보다 먼저 시작

되었고, 그 목적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욕망이나 적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또는 악마나 위험을 쫓는 부적 효과를 내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함으로써 피부장식을 통한 화장의 상징성을 언급하였다. Gröning(1997)은 바디 페인팅에서 사용된 색의 미술과 상징은 수렵, 적으로부터의 보호, 자연계에 대한 정령 신앙적 힘, 다산문화에 대한 경건한 성적 흥분, 인류의 결속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Sanders(1989)는 바디 페인팅은 집단의 행동 변화를 의미하며, 이 때 사용된 상징적인 그림들은 일상적 자아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며, Brain(1979)은 18·9세기 아메리카나 중동 지역을 방문했던 기독교 선교사나 서구 여행자들은 이 지역 사람들의 강한 신체화장에 충격을 받았지만, 신체예술에 표현된 종교적 신념이 내재된 상징적 의미는 수용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오늘날 미국의 거리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행사 중 하나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주술의식에서 행해지는 신체장식과 몸짓은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현실적 문제에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신념 뿐 아니라(Axtell, 1996), 인디언으로서의 자부심과 부족의 역사를 의미하여, 사람의 개성을 유지시키고, 상처 치유의 기능도 가진다(Marra, 1996)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한편, Reynold(2003)는 19세기 말 참정권을 주장하는 진보적 여성들의 빨강색 입술화장은 전통적 이념에 대한 반항의 상징으로 간주함으로써 장식적 기능에서 언급한 입술화장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 2. 색과 문양에 따른 페이스 페인팅의 상징적 기능

색과 문양에 따른 페이스 페인팅의 상징적 의미는 비기독교 문화권 집단의 특징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색에 의한 상징적 표현

페이스 페인팅에서 특히 색의 의미는 문양보다 더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문양이 특정한 사물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에 비하여, 색은 개인이나 집단, 상황에 대한 간접적이고 비정형적인 의사표현이기 때문이다. 비기독교 문화권의 신체화장에 사용된 색은 황토에서 추출한 빨강과 노랑, 땅간의 검정색, 석회의 흰색 등이 대부분이었고, 이들 색에 담긴 각각의 의미는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특정 색의 경우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였다. Brain(1979)은 검정, 빨강, 흰색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체장식의 기본적인 색이며, 그 예로서 빨강은 캘리포니아 지역 Thompson 인디언들에게는 행복한 삶, 열정, 대지를 의미하였고, 남미 Tchikrin에서는 건강, 힘, 감수성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반면 파랑은 Thompson에게 선조를 의미 하지만 Brain(1979), 체로키족에게는 좌절과 고난의 상징한다고(Gröning, 1997) 하여 문화권에 따른 색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검정은 적, 죽음, 불운, 그리고 암흑을, 흰색은 정신세계, 영, 죽음에 대항하는 절대자, 평화와 행복을 의미한다고(Brain, 1979; Gröning, 1997) 하여 색의 공통적 의미를 언급하였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색은 비교적 공통된 의미를 가지는데, Paiute 인디언들이 춤 출 때, 몸과 얼굴에 황토와 진흙으로 만든 빨강, 검정, 노랑, 그리고 흰색(Paterek, 1994) 페인팅을 하였는데, 이는 곧 체로키 전사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색의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한편 아프리카 방와(Bang Wa)족은 평소에 캄우드(camwood: 서아프리카산 콩과의 단단한 나무)의 붉은 금색 가루로 그들의 몸을 덮었는데, 이것은 탄생과 결혼, 지도자의 등극, 소녀들의 성인의식 등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빨강은 찬양과 기쁨을 의미하였다. 또한 장례식에서 애도자들은 검정색 점토로 칠하고, 무늬를 그렸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과 애도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이 출전 시 사용한 빨강은 자신에게 행운을, 검정은 적들에게 불행을 준다(Brain, 1979)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오세아니아 문화에서 페이스 페인팅에 사용된 다양한 색은 천부적인 힘과 관련된 특별한 상징성을 가

졌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빨강은 능력과 기적의 색으로 간주되어졌으며, 축제에서 희미한 색의 사용은 불길한 징조를 의미하였다(Gröning, 1997). Sanders(1989)도 신체 화장의 기본 색들은 다른 문화와의 많은 연관성을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즉 빨강은 피와 다산,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이 있었으며, 진흙이나 재로부터 생성된 흰색은 초자연, 순결함, 애도를 나타내는 색이고, 검정은 불순함(더러움)과 적을 의미하였다고 한다. 색으로 표현된 신체화장의 예는 <그림 1>을 통하여 잘 나타난다. <그림 1-a>는 초기 사회의 기본색인 빨강과 흰색으로 얼굴과 몸을 칠한 BC 200-AD 300년경 멕시코 북서부에서 발견된 조각상으로 다산과 모계사회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는(Gröning, 1997), 이 조각상을 통하여 당시 이러한 신체장식들이 실제로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b>는 아프리카 지역의 빨강색 페이스 페인팅이며, <그림 1-c>는 북아메리카 남서 지역 인디언들이 사냥 축제에서 빨강색 칠한 남자 얼굴이다. <그림 1-d>는 눈주위를 검정색으로 두껍게 그리고 빨강색으로 검정주위를 칠한 북아메리카 인디언을 모습으로서, 검정색은 적을 죽이려는 암시와 적에게 불운을 동시에 의미한다. 특정 행사에서 페이스 페인팅에 담긴 색의 의미로서 체로키족은 출전 시 신분표시와 적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하여 페이스 페인팅을 하였으며, 이 때 빨강, 검정, 흰색 이외에 노랑도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색의 사용은 백인과의 동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Sizmore, 1995)이라고 하였다(그림 1-e). <그림 1-f>는



a



b



c



d

a 멕시코 조각상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 28.

b. 파푸아뉴기니아 여성

자료출처: Camphausen, C. (1997). *Return of the tribal*. p. 44.

c. Deer Dance 축제

자료출처: Bahti, T. & Bahti, M. (2001). *Southwestern Indian ceremonial*. p. 16.

d. 검정 빨강 인디언

자료출처: Paterek, J. (1994). *Encyclopedia of American Indian costume*. Cover.

<그림 1> 색에 의한 상징적 표현



e



f



g



h

e. 체로키 전사  
 자료출처: Sizemore, D. (1995). *Cherokee clothing*. p. 242.  
 f. 검정 얼굴 전사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62.

g. 희미한 색 얼굴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72.  
 h. 갈색의 호피족  
 자료출처: Ketchum, Jr. W. C. (1997). *Native American art*. p. 14.

<그림 1> 계 속

남아메리카 전사로서, 적에게 불운을 준다는 검정색의 의미가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 한편, <그림 1-g>는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오세아니아 지역 남자 얼굴에 표현된 갈색과 탁한 노랑색이며, <그림 1-h>는 갈색, 흰색, 빨강색 입술로 뱀 축제에 참가한 북아메리카 Hopi족으로, 이 때의 갈색은 특별한 의미보다는 위장을 위하여 사용된 것(Ketchum, 1997)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빨강, 검정, 흰색은 신체장식의 기본색이었으며, 집단에 따라 노랑, 파랑, 회색, 갈색 등도 사용되었고, 그 의미는 지역과 집단에 따른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빨강은 지역이나 행운, 건강, 힘의 부여, 흰색은 순결, 평화, 행복 등과 같은 비교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에 반하여, 검정은 불운, 적과 같은 부정적 의미를 암시하는 색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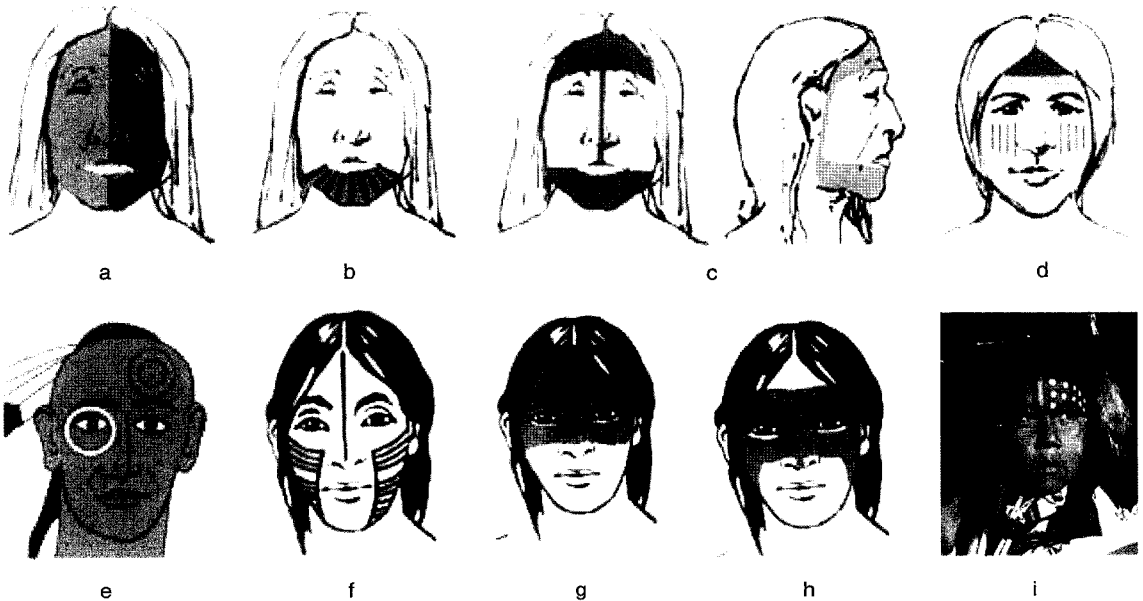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색에 대한 상징은 오늘날 색에 대한 일반적 상징성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색의 상징성과 내재된 의미는 시대, 문화권, 그리고 용도를 초월하여 유사하게 사용됨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문양에 의한 상징적 표현

일반적으로 비기독교 문화권의 페이스 페인팅에서 표현된 문양은 기하학적 선에 의한 추상적 문양과 동물, 식물, 해, 달, 등의 구체적 대상물이다. 기하학적 추상 문양은 각 선과 전체 무늬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가 다르지만, 사실적 문양은 해당 문양과의 일체감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특정 문양을 그림으로써 그 문양이 가진 힘을 자신도 가질 수 있거나, 보호받

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Brain(1979)은 신체장식에서 표현된 수호신은 해, 달, 물, 별, 석양, 벼락, 비, 무지개, 눈, 코요테, 수달(otter), 족제비, 갈가마귀, 삼목(cedar), 전나무, 그리고 담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이들 각 문양 사용의 주된 목적은 도박, 수렵기간의 날씨, 치명적인 상처와 부상에 대한 진통 등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Thompson족의 페이스 페인팅 문양에서, 일반적으로 전사들은 얼굴에 검정과 빨강을 반반씩 그리거나<그림 2-a>, 빨강과 검정으로 턱 전체를 덮는 줄무늬를 그렸으며, 이 때, 검정 줄무늬는 그가 죽인 사람 수를 의미하였다(그림 2-b). 한편 <그림 2-c>는 춤 행사에서 훌륭한 전사임을 표시하는 얼굴의 앞 모습과 옆모습으로서, 코 중앙을 지나는 세로선으로 이마와 턱에 그린 수평선을 연결하였으며, 이 때 빨강색의 좁은 선을 각 눈 아래 그리고, 두 귀를 빨강색 칠했다고 한다. Thompson족이 얼굴에 그린 문양은 수호신의 표시 뿐 아니라, 불행한 일을 당하였을 때 위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2-d>는 미망인을 나타내는 문양으로서, 앞이마 위쪽은 빨강색, 아래는 노랑색 칠하고, 두 눈 아래에는 중간 길이의 4개의 수직선을 그렸는데, 이마 그림은 낮과 새벽을 의미했고, 그리고 눈 밑의 선은 눈물을 의미 하였다.

체로키족 전사들은 전쟁을 의미하는 빨강 얼굴에, 적의 흔적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눈 주위에 흰 동그라미를 그렸으며, 이마에는 적을 찾아 죽인다는 검정 동그라미를 그렸다(Sizemore, 1995)(그림 2-e). Gröning(1997)은 얼굴과 신체그림은 많은 의미를 가지지만, 누구도 그것을 전수하지 않았으므로 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추상적 패턴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그림



a. 일반 병사  
 자료출처: Brain, R. (1979). *The decorated body*. p. 24.  
 b. 턱 그림  
 자료출처: Brain, R. (1979). *The decorated body*. pp. 24-25.  
 c. 유명한 전사의 앞과 옆모습  
 자료출처: Brain, R. (1979). *The decorated body*. p. 25.  
 d. 미망인  
 자료출처: Brain, R. (1979). *The decorated body*. p. 25.  
 e. 체로키 전사  
 자료출처: Sizemore, D. (1995). *Cherokee clothing*. p. 242.

f. 주술사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 63.  
 g. 청년의식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 63.  
 h. 적령기 여자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 63.  
 i. Paiute소년  
 자료출처: Marra, B. (1996). *Powwow*. p. 105.

<그림 2> 기하학적 문양의 페이스 페인팅

2-f~2-h>의 그림들은 남아메리카 Cobroti족의 페이스 페인팅이다. <그림 2-f>는 춤 의식에서의 정글 뱀의 강한 힘을 나타내는 주술사 얼굴로, 이것은 죽은 자와의 접촉을 의미한다. <그림 2-g>는 용맹스러움을 확인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청년의식에 입문한다는 표시이며, <그림 2-h>는 초경이 끝나고 결혼적령기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2-i>의 Paiute족 소년은 조상과 조인자들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추상 문양들은 형태나 선의 위치에 따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언어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 역할 수행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곧 정확한 해설이 없으면 이해 또한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한편, 사실적 문양은 추상적 패턴과는 달리 자신들이 수호신으로 여기는 동물이나 대상물 등을 얼굴에 직접 그린 것이다. <그림 3-a>의 북아메리카 Okanagan 소년은 버팔로와 독수리와 같은 삶을 원하는 마음을

얼굴에 표현하였다(Axtell, 1996)고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흰색과 검정 독수리 깃털 문양의 Yakama 족 남자 얼굴인 <그림 3-b>와 뱀 문양의 남아메리카 Txikão족 남자를 나타낸 <그림 3-c>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d>는 검은 점의 남아메리카 Mehinakú족인데, Gröning(1997)은 이 무늬를 새의 날개 또는 생선 지느러미로 추측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동물 이외에 생선도 수호신의 역할을 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사람의 골격을 얼굴과 몸에 그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조상들이 완전히 죽지 않고 젊은 여자를 통하여 환생한다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그림 3-e).

<그림 3-f>의 북아메리카 인디언 폭스족 추장은 용감한 북미산 곰을 그려 그 힘을 자신도 가졌다(Taylor, 2002)고 생각하였다. 한편, Brain(1979)은 의식 진행자로서의 주술사를 위한 디자인으로 손, 발, 팔과 같은 신체일부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영혼을 부르고, 성공



a



b



c



d



e



f



g

#### a. Okanagan

자료출처: Marra, B. (1996). *Powwow*. p. 44.

#### b. Yakama

자료출처: Marra, B. (1996). *Powwow*. p. 83.

#### c. Txião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 60.

#### d. Mehinakú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 61.

#### e. Lobi 소녀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 117.

#### f. Fox

자료출처: Taylor, C. F. (2002). *The American Indian*. p. 313.

#### g. Chippewa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 33.

### <그림 3> 사실적 문양의 페이스 페인팅

과 보호를 약속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치료술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얼굴에 손을 그리고 있는 북아메리카 Chippewa족 추장<그림 3-g>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실적 문양은 자신들이 수호신으로 여기는 동물이나 대상을 얼굴에 직접 표현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징적 의미전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하학의 형태, 선의 위치 등에 따라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여 특정 집단에서 기호화됨으로써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추상 문양과 차이를 가진다.

### III. 현대 페이스 페인팅의 양상

본 장에서는 오늘날 쉽게 접할 수 있는 페이스 페인팅이 표현적 기능의 두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장식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과 어떤 관련성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스포츠 경기와 각종 행사와

페이스 페인팅 특성 및 표현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축구경기에서 표현된 페이스 페인팅

스포츠 경기의 페이스 페인팅 현상과 관련하여, Polhemus(2004)는 특히 남성 스포츠 팬들이 중요한 스포츠 경기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팀의 색을 얼굴 위에 그리는 행위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현대 얼굴과 신체화장의 놀랄만한 진보로 간주하였다. 국내 스포츠 경기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가장 쉽게 볼 수 있었던 사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월드컵에서 응원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페이스 페인팅의 주요 모티브는 응원국의 국기나 축구공 문양이었으며, 이러한 문양과 색상차용은 경기의 열기를 더하고 축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은 전 국민이 동참하였던 대형 축제였던 만큼 우리나라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대중화 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그림 4-a>는 1994년 월드컵 관중 모습으로 모자와 연결된 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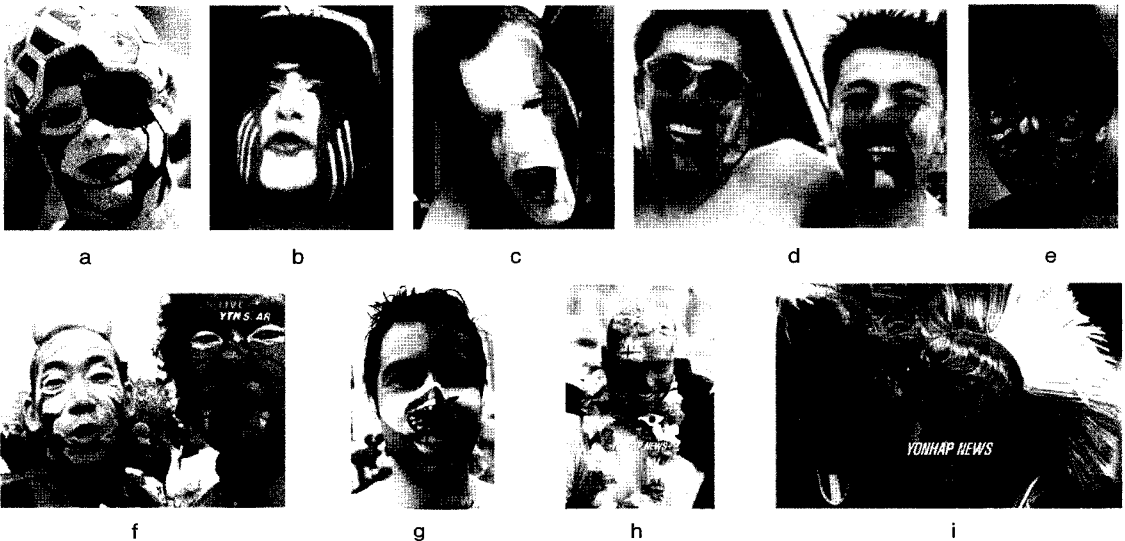
공 이미지의 재현은 페이스 페인팅으로 구체화시킨 축구경기의 상징적 표현이다. <그림 4-b>는 1996년 유러피안 컵에서 터키 축구 팬으로서, 빨강과 흰색의 터키 국기색을 차용하였다. <그림 4-c>는 프랑스 국기의 상징색으로 얼굴 전체를 장식하고 응원하는 프랑스 축구 팬의 모습이다. <그림 4-d>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으로 이니셜 'k'를 얼굴 중앙에 그리고 양면에는 흰색으로 칠하였으며, <그림 4-e>는 검정과 흰색을 주조색으로 한 문양과 입술 주변에 빨강색을 사용하여 악마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각국 응원단의 페이스 페인팅은 좀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상징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는 붉은색과 호랑이 가죽 문양이 특징적인 <그림 4-f>의 우리나라 붉은 악마들 모습에서 확인 된다. <그림 4-g>의 브라질, <그림 4-h>의 호주, 그리고 <그림 4-i>는 이태리 응원단으로서, 이들은 각국의 국기색이나 문양을 페이스 페인팅의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태리 팀의 경

우 얼굴과 머리색, 그리고 유니폼의 마크를 일치시킴으로써 응원국의 이미지를 더 강조시켰다. 이상과 같이 축구경기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관중들의 페이스 페인팅에서 대부분의 응원객들은 응원팀 국기의 색상과 문양을 차용하였으며, 우리나라 붉은 악마들은 검정, 흰색, 빨강색과 호랑이 가죽 문양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강렬함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2. 기타 행사에서의 페이스 페인팅

축구 이외의 스포츠 경기에서 페이스 페인팅은 최근의 경향으로서, 특히 참가 선수들이 얼굴의 한 부분에 캐릭터나 로고를 그려 넣는 단순한 장식적 측면에서의 페이스 페인팅이 있다. 반면, 일반 행사의 페이스 페인팅은 특정한 단체의 로고나 심벌 마크로부터 인지도나 선호도가 높은 캐릭터나 특정일을 의미하는 디자인까지 다양하다. <그림 5-a>는 2007년 호주 퍼스의 렉서스 컵 대회에서 갤러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자 골퍼 선수들의 페이스



a. 축구공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 238.  
 b. 터키  
 자료출처: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p. 239.  
 c. 프랑스  
 자료출처: Polhemus, T. (2004). *Hot bodies cool styles*. p. 27.  
 d. 한국  
 자료출처: <http://srchdb2.chosun.com/photo>  
 e. 한국  
 자료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

f. 붉은 악마  
 자료출처: <http://61.251.170.123:8080/newsis/search03.jsp>  
 g. 브라질 응원  
 자료출처: <http://www.newsis.com/gallery/view>  
 h. 호주 응원  
 자료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  
 i. 이태리 응원단  
 자료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

<그림 4> 축구경기에서 표현된 페이스 페인팅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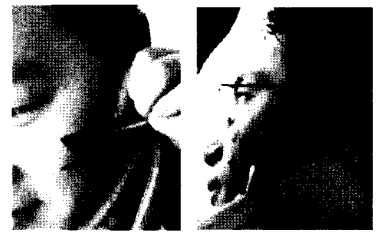
c



d



e



f

a. 여성 골퍼들

자료출처: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

b. 김영옥

자료출처: <http://www.newsis.com/gallery/view>

c. 여성 마라토너

자료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

d. 발렌타인데이 커플

자료출처: <http://www.donga.com/news/society.html>

e. 다양한 모습의 가족

f. 로고와 태극기 표현

<그림 5> 기타 행사에서의 페이스 페인팅

스 페인팅(“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 골퍼들”, 2007) 모습으로, 눈에 띄는 밝은 색에 문자나 하트 모양으로 볼을 장식하고 있다. <그림 5-b>는 2008년 1월 한국 여자 프로농구 대회(WKBL)에서 페이스 페인팅으로 관중의 시선을 끌었던 김영옥(“페이스 페인팅한 희망팀 김영옥”, 2008)은 얼굴에 농구 경기 사인물을 직접적으로 장식하였다. <그림 5-c>는 제8회 하이서울 여성 마라톤 대회 참가자로서(“하이서울 여성 마라톤 대회”, 2008) 볼 한쪽에 빨간 하트 모양을 그려 넣어 가발과 빨 장식, 입술색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편, <그림 5-d>는 발렌타인 데이에 초콜릿 색의 하트 모양을 얼굴에 장식하고 있는 커플들이다. <그림 5-e>는 한 연극단체가 개최한 연극제에서 관객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가족들이 뽀이로, 개, 고양이 등으로 얼굴을 장식하고 있는 가족들의 즐거운 표정을 담은 모습이며, <그림 5-f>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단체의 직원들이 자사 로고와 태극기 문양으로 페이스 페인팅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상의 그림들을 통하여 현대 축제 문화에서의 페

이스 페인팅 양상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각각 화장의 표현적 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즉, 월드컵 경기 관중들의 페이스 페인팅이 화장의 상징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하여, 축구 팬 이외의 참가 선수들은 다른 행사 참가자의 페이스 페인팅과 같이 특정 그림이나 문자를 얼굴의 한 부분에 그려 넣어 장식적 효과를 강조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 문화에서 행해지는 페이스 페인팅은 사상이나 의식의 표현이 아닌 단순히 행사의 의미를 더하는 흥행성과 사람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개인의 자기표현방식임에 반하여, 스포츠 행사의 페이스 페인팅은 애국심 표현과 응원팀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으로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그 차이가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오늘날 스포츠 경기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쉽게 행해지고 있는 페이스 페인팅의 의미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화장의 기

능과 페이스 페인팅과의 관련성, 페이스 페인팅을 생활문화로 수용하였던 비기독교 문화권의 페이스 페인팅에서 표현된 색과 문양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20세기 문화에서 표현된 페이스 페인팅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바디 페인팅을 포함하는 페이스 페인팅은 미적 표현 수단임과 동시에 개인이나 집단의 상징적 의사전달 수단이며, 특히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언어 이상의 힘을 가지는 의사전달 체계로도 사용되었다. 화장의 표현적 기능과 관련하여 비기독교 문화권과 현대 스포츠 팬의 페이스 페인팅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심 표현을 위한 상징적 기능을 강조한 반면, 일반 행사에서의 현대인의 페이스 페인팅은 행사의 흥행성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개인의 단순한 미적 표현인 장식적 기능을 더 강조하고 있다. 둘째,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페이스 페인팅에 사용된 색은 문양보다 더 강한 상징성을 가졌다. 즉, 빨강은 생명, 행복한 삶, 찬양과 기쁨, 다산 흰색은 정신세계, 영적인 힘, 평화와 행복, 순결함 검정은 적, 죽음, 애도, 불운, 암흑, 신성모독과 불순함 등을 상징하였다. 따라서 빨강과 흰색은 긍정을, 검정은 부정성을 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문양은 기하학적 선에 의한 추상적 문양과 동물, 식물, 해, 달, 등의 구체적 대상물이 사용되었다. 특히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기하학적 추상 문양은 집단에 따라 선과 무늬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한 반면, 사실적 문양은 수호신으로 여기는 동물이나 대상물의 문양을 얼굴에 직접 그림으로써 그것들이 가진 힘을 부여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기하학에 의한 추상 문양은 집단 내에서 통용되었던 문양의 기호화를 의미하고, 사실적 문양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비기독교 문화권과 현대인의 페이스 페인팅을 비교한 결과,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페이스 페인팅을 종교적 신념표현, 의사전달과 신체보호기능 등이 중심이었다면, 현대 서구사회에서는 주로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팀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현과 이벤트성 행사에서 개인의 얼굴장식에 목적이 있었다. 반면 시대와 문화권을 초월하여 화장의 상징적 기능 수행과 남성 화장수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20세기 이후 남성 화장행동의 놀랄만한 진보로 간주되는 스포츠 팬들의 페이스 페인팅에서 주된 모티브로 사용되었던 국가의 색과 문양은 사실적 문양으로 특별한 의미

를 표현했던 비기독교 문화권의 페이스 페인팅의 상징적 기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며, 이러한 현상은 남성 화장수용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융합되고 있는 에스닉 문화의 요소가 화장행동에서도 적극 수용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문화권의 페이스 페인팅에 내재된 의미는 색과 문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비기독교 문화권의 페이스 페인팅이 종교적 신념과 언어의 전달기능, 집단이나 개인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상징성이라면, 현대 페이스 페인팅은 지역이나 문화권에 따른 차이보다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국가의 국기 문양 등을 통하여 적극적 의사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반 축제에서는 흥행이나 개인의 얼굴장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기독교 문화권에 비하여 더 단순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현대 비기독교 문화권의 페이스 페인팅 양상과 내재된 의미를 화장문화의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의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화장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문헌들이 부족하였다는 것과 특히, 신체장식을 주로 했던 비기독교 문화권 집단에 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자료제시를 할 수 없었던 점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문의 한 분야로서의 화장의 연구영역 확대를 위한 계기 마련과 관련 분야의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제공한다는데 그 의의를 둔다.

## 참고문헌

- 블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 골퍼들. (2007, 12. 9). *아시아경제*. 자료검색일 2008, 6. 1, 자료출처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
- 붉은 악마. (2002, 6. 22).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04, 3. 10, 자료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Photo](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Photo)
- 붉은 악마들의 모습. (2002, 6. 11).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04, 3. 10, 자료출처 <http://srchdb2.chosun.com/photo/read>
- 브라질 응원단. (2006, 6. 28). *뉴스시스*. 자료검색일 2006, 9. 2, 자료출처 <http://www.newsis.com/gallery/view>
- 에빈, 빅토리아. (1979). *신체 장식*. 임숙자 역 (1988). 서울: 경춘사.
- 이태리 응원 커플. (2006, 7. 1).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06, 9. 2, 자료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
- 초콜릿 페이스 페인팅 커플. (2005, 2. 14).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05, 4. 13,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 news/society.html
- 패인, 블랑쉬. (1965). *복식의 역사*.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옮김 (1988). 서울: 까치.
- 페이스 페인팅한 희망팀 김영옥. (2008, 1. 5). *뉴스스*. 자료 검색일 2008, 6. 1, 자료출처 <http://www.newsis.com/gallery/view>
- 하이서울 여성 마라톤 대회. (2008, 5. 4).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08, 6. 5,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Photo/YIBW>
- 호주 응원단. (2006, 6. 26).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06, 9. 2, 자료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Photo](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Photo)
- 4,800만 붉은 악마, 2010년 다시 한 번! (2006, 6. 26). *YTN Star*. 자료검색일 2006, 9. 2, 자료출처 <http://61.251.170.123:8080/newsis/search03.jsp>
- Axtell, H. (1996). *Powwow*. N.Y.: Abram.
- Bahti, T. & Bahti, M. (2001). *Southwestern Indian ceremonial*. Wickenburg: .KC. Publications.
- Benthall, J. & Polhemus, T. (1975). *The body as a medium of expressions*. N.Y.: E. P. Dutton & Co. Inc.
- Brain, R. (1979). *The decorated body*. N.Y.: Harper & Row Pub.
- Camphausen, C. (1997). *Return of the tribal*. Vermont: Park Street Press.
- Gröning, K. (1997). *Decorated skin*. London: Thames & Hudson.
- Ketchum, Jr. W. C. (1997). *Native American art*. N.Y.: Smith-mark Pub.
- Hebdige, D. (1979). *Subcultur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eblanc, L. (2002). *Pretty in punky*. New Brunswick: Rutgers Univ. Press.
- Marra, B. (1996). *Powwow*. N.Y.: Abram.
- Miles, B. (2004). *Hippie*. London: Sterling.
- Paterek, J. (1994). *Encyclopedia of American Indian costume*. N.Y., London: W.W. Norton & Company.
- Polhemus, T. (1988). *Body styles*. London: Lennard Publishing.
- Polhemus, T. (2004). *Hot bodies cool styles*. London: Thames & Hudson.
- Polhemus, T. (1997). *Street style*. London: Thames & Hudson.
- Polhemus, T. (1996). *Style surfing*. London: Thames & Hudson.
- Polhemus, T. (1978). *The body reader*. N.Y.: Pantheon Books.
- Polhemus, T. & Randall, H. (1996). *The customised body*. London: The British Library.
- Reynold, H. (2003). *A fashionable history of make up & body decoration*. London: David West Children's Book.
- Sanders, C. R. (1989). *Customizing the body*. Philadelphia: Temple press.
- Sizemore, D. (1995). *Cherokee clothing*. Cherokee: Cherokee Pub.
- Taylor, C. F. (2002). *The American Indian*. Philadelphia: Courage Books.
- The Andy Warhol Museum. (1997). *The warhol look*. Toronto: Bulfinch AWM.